

러시아 수출 반토막...광주·전남 수출기업 '시름'

지난해 1억8800만달러 수출...전년 동기비 51.5% ↓ 규제 품목 급증에도 대책 마련 못해 "정책적 관심 시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수출 제재 조치가 거리가 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정부는 이들 지원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발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출 제재 현황 및 광주·전남 기업의 영향' 자료를 보면 광주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지난해 1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1.5%나 감소해 반토막이 났다.

러시아는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수출의 10.5% 상당을 차지하는 13위 수출대상국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으로 러시아로의 수출금액 비중이 각 30.7%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러-우 전쟁에 따른 수출 악화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63.2% 감소한 5750만 달러에 머물렀고, 자동차부품 수출 역시 65.2% 감소한 57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남은 러시아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0.8% 수준으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지난해 수출이 3억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3% 감소하는 등 역시 전쟁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올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를 통

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부는 기존 수출통제 품목을 기존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를 추가, 총 798개로 늘렸다.

광주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최대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포함되면서 지역 수출에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 수출기업들은 수출 제재에 따른 어려움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적어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올 5-6월 지역 내 러시아 수출 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출제재에 따른 주요 애로'로 '기존 거래선의 중국 등지 이탈'(40.8%), '수출 중단에 따른 자금 애로'

(24.5%), '기존 거래선의 대금결제 및 회수 리스크'(12.2%) 등을 꼽은 기업이 많았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타국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38.8%), '러시아 우회 수출 방법 탐색'(14.3%)을 답한 기업이 있었지만, 32.7%에 이르는 기업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10곳 중 3곳 이상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응답 기업의 28%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제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적어 관련 안내를 희망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응답기업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희망하는 지원으로 '러시아 수출 제재 현황 및 관련 전문가 컨설팅'(36.7%), '대금 결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32.7%),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 마케팅 지원'(28.6%)을 꼽았다.

지역의 한 러시아 전문 수출기업 관계자는 "우리 나라 전체 수출 중 러시아 수출 분이 0.9%에 불과

할 정도로 적지만 러시아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기업도 상당하다"며 "수출 제재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고 호소했다.

실제 조사에 응답한 광주·전남 기업 50개사 중 러시아 수출액 비중이 40-100%에 달하는 기업은 4곳(8%)으로 조사됐다. 10-40%인 기업도 7곳(14%)으로, 0-10%는 39곳(78%)이었다.

국제무역학 박사인 진형석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러시아의 원자재 공급 통제 강화, 우크라이나산 곡물 공급 제한 등 우리 기업 제조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중남 기업에 대상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과 무역금융, 물류비 등 수출지원 집중을 통해 리베이트(생존 가능 시간)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선거 광주 출신 선·후배 맞붙는다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권영현 엔와이케이글로벌 회장 입후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유타) 회장 선거에 박종범(66·영산그룹 회장) 상임이사와 권영현(65·엔와이케이글로벌 회장) 미국 동부지역 부회장이 출마한다.

13일 월드유타에 따르면 지난 1-10일 제22대 임원 입후보 등록 결과 박종범 상임이사와 권영현 부회장이 회장 후보로 입후보했다.

박종범 이사와 권영현 부회장은 광주 살레시오고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빈 지회 소속인 박 이사는 차량 부품 제조, 플랜트, 무역 등을 업종으로 사업을 펼치며 20개국에 28개 법인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장과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을 역임했고, '제3회 장보고항상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유럽의 대표 한상(韓商)으로 꼽힌다.

한국계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미국 경험을 쌓은 뒤 1995년 뷰티 서플라이 소매점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한 권 부회장은 월드유타에서 뉴욕 지회 이사장과 지회장, 제1통상위원장과 회원



박종범 회장 권영현 회장

권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 까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기간 중인 10월 26일 열린다.

월드유타는 재외동포 최대 규모 경제단체로, 68개국, 143개 지회에 소속된 7000여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위한 협의체 회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과 문화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광주CGI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는 고미아 협의회장을 비롯한 광주 지역 콘텐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광주 콘텐츠 산업을 진단하고,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인재 양성 및 유인책 ▲산업계 내 글로벌 흐름 ▲투자 및 신기술 관점의 지원 방향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류한 지원 구조 등의 세부 안건을 발표했다.

이경주 원장은 "발굴된 세부 안건을 바탕으로 필요성에 입각한 지원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단하고 발전시키는 선순환적인 지산학연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산학연 협의체는 향후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이날 나온 안건에 대한 세부 주제별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중진공 호남연수원, 디지털 전환 실무 중심형 AI 연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오는 23일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실무 중심형 인공지능(AI) 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실증 장비에 취합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호남연수원이 관련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연수 기획 및 운영 등을 총괄한다.

실증데이터는 별도의 정제·가공 및 분석 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하다. 해당 데이터를 적용한

실습과정은 최초로 운영되는 연수라는 점에서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hat GPT의 강점 및 활용방안 ▲랭체인(LangChain) 등장 배경 및 실습 ▲ChatGPT와 랭체인 기반의 챗봇 만들기 실습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총 4시간 동안 호남연수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조수정 호남연수원장은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인재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정통 SUV 감성으로 돌아왔다...현대차 신형 '싼타페'

5년만에 5세대 완전변경 모델...강인한 외장·최첨단 안전사양

현대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싼타페의 완전변경 모델이 정식 공개됐다.

현대차는 최근 '디 올 뉴 싼타페'〈사진〉의 핵심 사양을 소개하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로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싼타페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현대차 측은 견고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외장과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대형 테일게이트, 동급 최대 실내 공간, 최첨단 편의·안전사양 등 뛰어난 상품성을 강조했다.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캠핑과 차박이 유행함에 따라 도심형 SUV가 아닌, 야외 활동에 어울리는 정통 SUV 성격을 크게 강화한 게 특징이다.

외관은 과거 생산된 겔로퍼 등을 연상시키는 상자 형태의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전면부에는

현대차의 엠블럼을 재해석한 'H 라이트'를 적용해 포인트를 줬다.

전장은 이전보다 45mm 길어진 4830mm로, 전고는 35mm 증가한 1720mm로 높아졌고, 휠베이스(축간 거리)는 50mm 늘어난 2815mm다. 2열과 3열 시트를 접으면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갖췄다는 평가다.

수하물 용량은 차급 최고 수준인 725 l 로 골프 가방(캐디백) 4개와 보스턴 가방 4개를 실을 수 있다. 편안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양도 적용됐다.

우선 1열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릴렉스 컴포트 시트와 다리 지지대를 장착했다. 릴렉스 컴포트 시트는 시트 등받이와 쿠션 각도 조절로 무중력 자세를 만들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열은 전용 리클라이닝 독립 시트를 장착해 편의성을 높였고, 전동식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을 비롯해

쿠션 각도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 릴렉스 모드까지 구현할 수 있다.

현대차 최초로 스마트폰 듀얼 무선충전 시스템을 갖춰 차 안에서 스마트폰 2대를 동시에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곡선 구간에서 차량을 차로 중앙에 위치하게 하는 차로 유지 보조 2, 방향지시등 조작만으로 차로를 자동 변경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등 각종 운전자 지원시스템도 적용됐다.

신형 싼타페의 파워트레인(동력계)은 2.5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2종으로 운영된다. 가솔린은 최고 출력 281마력에 최대 토크 43.0 kgf·m, 복합 연비 L당 11.0km이며,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최고 출력 235마력에 최대 토크 37.4kgf·m이다. 하이브리드 연비는 정부 인증 후 공개된다.

현대차는 이달 출시되는 신형 싼타페의 국내 판매 목표를 2만8000대로 잡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철근 누락' LH, 끝없는 임직원 비위

2018년부터 299건 징계...해임·파면 등 중징계도 다수

철근 누락 사태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이번에도 조직문화 혁신과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 제출 받은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 순이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징계 건수는 2018년과 2020년 각

각 32건, 35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무려 9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8건이나 됐다.

무엇보다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으로, 파면도 10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견책 17건,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 등 순이었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우리은행 주담대 대출기간 최장 50년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마지막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에 들어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4일부터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

하기 시작했다.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주택 담보에 한정), 우리WON주택대출, 주거융집담대출(분양아파트 입주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원리금균분상환상환방식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한해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고령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08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6	23	31	36	44	3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639,444,429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1,780,714	82
3	3개 숫자일치					1,561,037	2,720
4	4개 숫자일치					50,000	136,257
5	3개 숫자일치					5,000	2,254,999